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조영국** · 박창석*** · 전영옥****

요약 :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어메니티 관련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측정할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에 의해 중요한 인식의 차원을 도출하고 상이한 조사집단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인들의 농촌어메니티 인식에 있어서 생활여건의 편리성,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등의 세 가지 핵심적 차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도시민이나 농촌주민들 모두 이 세 가지 핵심차원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동일한 양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편리한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민들조차 생활여건의 편리함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촌어메니티를 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역사문화성, 자연친화성에 더 강조하는 학계나 계획가들의 태도와는 일정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농촌어메니티, 척도법, 일반인의 어메니티 인식, 학술담론

1. 서 론

1) 연구 목적

최근에 주거 혹은 관광계획 그리고 도시, 농촌 계획 등 모든 계획에 있어서 어메니티는 하나의 화두처럼 사용되고 있다. 어메니티 개념이 계획에 도입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처럼 그 가치를 높이 평가된 적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계획 분야에서만이 아니다. 어메니티는 후기산업사회의 전원지향의 인구이동, 대도시권 구조 변화에 깔려있는 핵심적 동인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

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은 가장 유력한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메니티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분야에서조차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어메니티 계획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왕에 언급되어 오던 생태계획, 경관계획 등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¹⁾ 더욱이 최근에 이루어지는 학계의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보면, 어메니티의 의미로 잘 정돈되고 쾌적한 물리적 환경조건 보다 역사문화성, 생태성(eco-centerism), 개성추구 등 추상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들을 더 강조하고 있어 개념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

* 이 논문은 2001년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과제번호: 201093-3)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협성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연구교수

**** 삼성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면 일반인들은 더욱 어메니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학술담론(academy discourse)과 일상적 이해(lay discourse)간의 간격이 커질 것이다.²⁾ 특히 계획행위는 일반인의 삶의 형태를 규정해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고도의 적실성(relevance)이 요구된다. 따라서 어메니티 계획 역시 어메니티를 둘러싼 일상적 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전제 위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계획가만의 계획(elite design)이라는 비판을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일반인들의 농촌어메니티 인식이 가지는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첫째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어메니티 개념의 하위 차원들을 추출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이러한 하위차원들이 인식의 판단기준으로 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위차원들간의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거주배경이나 농촌거주경험 그리고 농촌거주의향 등에 따라 위의 하위차원들에 대해 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분석 결과로부터 학술적 논의와 일반인의 인식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 마지막 문제는 연구의 기본 출발점인 동시에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어메니티를 다룬 기존 문헌에서 농촌 어메니티의 주요 차원들을 추출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설문척도를 설계하였다. 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를 밝히고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는 동시에 계획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2. 농촌 어메니티 개념과 척도 설계

1) 농촌어메니티 개념의 차원

(1) 어메니티 개념의 발전

영어 amenity는 유쾌성(plesantness), 매력성(attractiveness) 그리고 장소나 기후 등의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한 성질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어메니티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 감흥을 불러 일으키는 장소 혹은 환경의 여러 속성들을 합친 복합개념(compositive concept)으로서 즐거운(pleasant), 매력적인(attractive), 바람직한(desirable) 그리고 긍정적인(agreeable) 등을 그 구체적인 특징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하위 속성들을 반영하기 위해 흔히 쾌적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하위 속성들도 다분히 심리적 속성이고 다양한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만큼 어메니티는 하나의 용어로 그 개념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서는 아예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어메니티'라고 한다.

어메니티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 혹은 지역 계획에서 어메니티란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용되어 왔는가 살펴보는 것이 어메니티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계획 개념으로서 어메니티 개념의 태동은 19세기 영국 교외 중산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이재준, 1998: 21). 당시 도시계획의 목표는 '적절한 위생 상태'와 '편리성'과 함께 어메니티의 확보에 있었다. 이 경우의 어메니

티는 물론 일차적으로 정숙, 태양, 깨끗한 공기 등 물리적 환경 조건을 지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산층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사회계층이 모여 사는 것도 어메니티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였으며, 역사적·문화적 유산이나 수목의 보전을 중시하였다. 이렇듯 어메니티 개념은 출발부터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역사 문화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의 도시계획 혹은 환경계획에 있어서 환경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어메니티 개념의 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는 '어메니티의 추구'에 있고 이 경우의 환경지표가 과거의 환경지표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는 바로 이들이 어메니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환경지표가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네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다(이재준, 1998: 32-37). 제1기(1955-1965년)의 환경지표는 주로 공해방지에 목표를 두고 주로 대기나 수질 환경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제2기(1965-1975년)에 들어서는 환경지표의 범위가 이전에 비해 확대되어 여러 가지 생활환경 관련지표까지 포함하였다. '쾌적'과 '편리'라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었던 것이다. 다음의 제3기(1975-1985년)에서는 환경지표에는 주민만족도, 경제적 기회, 문화적 정서적 규범까지 포함되었다. 현재는 제4기(1985년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연과의 공생',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지표가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환경지표는 초기의 '생활환경', '편리' 위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친화' '문화, 정서' 위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이점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도시농촌계획이 발전하는 과정에 어메니티의

기본내용이 점차 확대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과 진동, 과밀주거와 같이 공중 위생의 최저 조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다가,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의 보전이념으로 혹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환경의 총체적 질을 표현하는 복합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이 변화는 초기의 생활환경과 편리를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초기의 지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난 이후 보다 고차적인 가치 추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의 어메니티 개념에서 '자연친화', '문화, 정서적 차원'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생활환경의 편리'이라는 조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충족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농촌어메니티 개념의 차원

위에서 고찰한 어메니티 개념은 주로 도시의 주거환경에 적용되어 발전해 온 개념이다. 농촌의 어메니티도 이것과 완전히 다를 수 없지만, 장소적 특수성이 고려되어 그 내용이나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 지역개발, 계획 분야에서 농촌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농촌어메니티를 주거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개발수단 혹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품으로서 평가되고 있다. 즉 농촌어메니티란 도시민에게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일종의 체험상품(experience commodity)과 같은 것이다(Coppack, 1988). 이 농촌어메니티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도시에게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어메니티에는 도시의 그것과 달리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공된 인공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며 '농촌다운 분위기(rural sentiment)'를 느낄 수 있는 자원은 농촌

어메니티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인간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환경(wilderness)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 '자연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농촌어메니티 측면에서 보면 그 가치는 농촌정서를 자아내게 하는 인공환경 자원에 비해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

도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농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구체적인 하위 차원들을 분석한 Palmer 등(197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시민들의 이미지에는 접근성이 양호하고 잘 정비된 목가적 농촌 이미지가 더 중요한 차원이며 상대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진 장소로서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차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Coppack(1988)은 농촌적 분위기(rural sentiment)가 도시방문객들이 가지는 농촌어메니티 이미지의 핵심적 속성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때의 농촌적 분위기는 전형적인 농촌경관에 대한 심정적 공감, 역사성, 평화와 정숙, 여유 등 심리적 속성(psychological attribute)과, 경관미(scenic attribute) 그리고 레저관련 시설 등의 상업적 속성(commercial attribute)의 종합적 산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하였다. Halfacree(1995)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최근에 농촌으로 이주해온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농촌이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농촌이미지는 한마디로 목가적 농촌이미지(rural idyll)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자연환경, 전통적인 농촌경관, 공동체적 문화, 자녀양육이나 거주에 있어서 안전성 등의 차원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여가활동이나 거주 이전의 목적지로서 도시민이 가지는 농촌어메니티 이미지를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농촌을 거주지역으로 여겨왔던 농촌주민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농촌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촌은 무엇보다도 생활장소이며 생업활동 장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도시어메니티 개념 및 어메니티를 추구해온 도시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생활환경 조건 측면도 농촌어메니티를 구성하는 중요한 차원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은 도시민이 아닌 도시이주민들에게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일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촌어메니티는 주거환경 조건으로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농촌어메니티에는 주거 만족도와 밀접한 '생활환경' 차원 '을 기본으로 '역사문화성', '자연친화성' 혹은 그것에 의해 표출되는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중요한 차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농촌어메니티에는 도시어메니티와 달리 단순한 역사문화성이 아니라 목가적 이미지 때로는 '고향' 이미지와 연결되는 '농촌다운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어메니티와 대비해서 그 자체가 개성이고 차별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 농촌어메니티 척도설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메니티는 몇 가지 중요한 차원(dimension)으로 구성된 복합적 개념(construct)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술적 정의이고, 일반인들은 어메니티의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며 또 차원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지는 못한다.

이 학술적 개념정의와 일반인의 인식구조를 비교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학술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메니티를 몇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또 각 차원들이 뚜렷하게 분화되어 인식되고 있는지 알아

표 1. 농촌어메니티 척도 설계

상위 차원	하위 차원	문항
농촌 분위기 (rural sentiment)	농업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 내세울만한 농산물 혹은 특산물이 있다 - 농사가 마을의 주소득원이다
	전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유서가 깊다 - 초가, 한옥 등 옛날 가옥들이 남아 있다 - 마을 안길, 농로, 개천 등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혼상제 때나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 -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서로 비슷하다 - 마을제사, 마을놀이 등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 마을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경관 (scenic attribute)	취락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이 많지 않다 - 소음이 적다 -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 집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모여 있다 -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자연친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 물이 깨끗하다 - 자연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 곤충을 쉽게 볼 수 있다
	경관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 아늑하다 - 경치가 수려하다 - 논밭, 숲, 산, 하천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 전망이 탁 트였다 -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생활여건 (basic need)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에 차량통행이 수월하다 - 도시와 멀지 않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주변도로는 넓고 잘 닦여 있다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을 동네서 살 수 있다 -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
	여가활동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여가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보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어메니티에 관한 기존 문헌에서 어메니티 기준(또는 차원)들을 추출하고 그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항(scale)들을 선정하였다. 앞 절에서 언급된 개념의 차원 이외에 좀더 구체적인 하위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계획 등에서 장소의 어메니티 환경 평가기준들을 참조하였다.³⁾ 또 각 기준에 포함되는 구체적 문항들을 추출하기 위해 Craik(1971), Palmer 등(1976), Kim(2000) 그리고 Halfacree(1995) 등의 문헌에서 장소이미지 혹은 장소 평가와 관련된 형용사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사전 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이때 문헌에서 추출한 문항리스트에 빠져 있지만 사전 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 혹은 형용사들을 일부 포함하여 최종적인 문항을 확정하였다.⁴⁾ 표 1은 최종적으로 추출된 단어들을 어메니티 개념에 함축된 차원들에 맞춰 배열한 것이다. 그러나 설문지 문항 배열에서는 의도적으로 각 차원들의 문항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뒤섞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칫 설문지 문항구조에 의해 응답자의 평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인식의 잠재적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각 사항의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중요도 평가는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소이미지 평가에는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두 형용사 표현을 짝으로 제시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의미분화척도기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 개념에 맞춰 설계된 질문들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단어 짝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의미분화척도

기법 대신에 리커드 척도 기법을 이용한 문항 설계를 하였다.

한편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설문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에서 그리고 농촌지역은 경기도 화성시의 3개면, 충청남도 홍성군의 3개면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의 2개면에서 실시되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자에 의해 현지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농촌지역의 경우는 이장(里長)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집단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⁵⁾ 농촌지역의 조사에서 이장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장들은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여론을 평소에 많이 수렴해왔기 때문에 비록 주관적 응답이라 하더라도 일반 주민의 생각이 상대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유효설문매수는 263매이다. 이 가운데 도시민의 설문지는 131매이다.

3.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

1)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

(1) 일차 요인(first-order factors)

조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척도 자료를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6개 척도 항목은 사전적으로 하나의 차원 즉 어메니티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항 자체의 한계, 응답과정에서의 오류는 불가피하여 신

뢰성에 문제가 야기하는 척도 문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추출되는 요인 수를 증가시키고 또 요인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혹은 설문지의 문항 배열상의 문제 등으로 전혀 이질적인 변수가 하나의 요인으로 결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보의 누락을 최소로 하면서 문제가 되는 4 문항을 제외하였다.⁶⁾

최종적으로 32개 척도 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요인의 추출은 주축추출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였고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회전은 사각회전(promax, k=4)을 실시하였다. 사각회전은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회전방법으로, 사회과학 연구들의 경우 요인들간의 관계가 상호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영준, 1991: 91).

최초요인추출에서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9개 추출되었고 이 9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3.30%를 설명한다. 아래 표 2은 요인과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를 나타낸 요인형태행렬(factor pattern matrix)을 재구성한 것이다. 표에는 요인상관계수의 절대값이 0.316 이상인 것만 나타내었다. 이 상관계수 하한 기준은 모든 문항이 적어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상관계수 값이다.⁷⁾ 추출된 요인들의 의미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

요인 1 : 요인 1은 '여가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생필품을 동네에서 살 수 있다',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와 관련된 문항들과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요인 1은 '여가활동기회 · 편리한 생활여

건'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요인은 고유치가 7.809에 이르고 전체 변량의 24.40%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설명력이 다른 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요인 2 : 요인 2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문항은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 '풍경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이고 이외에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마을이 아늑하다' 등의 문항도 비교적 상관성이 높다. 하나의 의미로 뚜렷이 포착하기는 쉽지 않으나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은 주로 자연환경 조건과 나타내는 문항들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요인의 명칭을 '자연친화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약 10%을 설명해준다.

요인 3 : 요인 3은 '초가, 한옥 등 옛날 가옥들이 남아 있다', '마을 행사가 있다', '마을의 유서가 깊다', '마을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등 농촌 마을의 전통적인 문화적 속성을 나타내는 문항들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요인 3은 앞의 표 1에 나타낸 사전적으로 분류한 문항분류에서 전통성과 공동체적 문화 두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차원을 결합하여 요인 3을 '전통적 농촌분위기'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약 6%를 설명한다.

요인 4 : 요인 4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주변에 농사짓는 집이 많다', '농사가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등이다. 주로 농업 활동이 마을의 핵심 기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항들이다. 따라서 요인 4는 '농업의 비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요인 4의 설명력은 약 4.5%이다.

요인 5 : 요인 5는 '경치가 수려하다', '전망이 탁 트였다', '마을안길, 농로 등에서 옛 모습을 찾

표 2. 유의미한 요인행태계수(factor pattern coefficient)

항 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마을이 아늑하다		0.395					0.326		
마을이 유서가 깊다			0.482						
마을제사, 마을놀이 등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0.778						
초가, 한옥 등 옛날가옥들이 남아 있다			0.509						
마을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0.436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다		0.473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0.611					
관혼상제나 농번기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		0.390		0.330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비슷하다							0.871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0.606					
농업이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0.599					
집이 많지 않다				0.316					
소음이 적다			0.328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0.388	0.374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		0.753							
논밭, 숲, 산, 하천 등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다		0.734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 혹은 곤충을 쉽게 볼 수 있다					0.322				
경치가 수려하다					0.794				
마을 안길, 농로, 개천 등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0.387				
전망이 탁 트였다					0.665				
집들이 모여 있다						0.539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0.444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0.602
도시에서 인접해 있다								0.424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0.460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0.583								
여가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0.837								
생필품을 동네에서 살 수 있다	0.572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	0.443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0.640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0.697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0.805								
고유치 누적 설명변량	7.809 24.40	3.195 34.39	1.929 40.42	1.465 44.99	1.420 49.43	1.218 53.24	1.147 56.82	1.039 60.07	1.034 63.30

을 수 있다' 등 경관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문항들과 높은 상관관계수 값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요인 5는 '경관미'와 관련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의 약 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인 : 요인 6은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집들이 모여 있다' 단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이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집이 많지 않다' 문항과의 상관관계수 값이 나머지 다른 문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6은 '취락형태'를 의미하는 문항이라고 해석된다. 요인 7은 '마을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비슷하다', '마을이 아늑하다' 두 문항과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요인 7은 '공동체 문화'이라고 해석하였다. 요인 8은 '도시에 인접해 있다',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두 문항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면서도 도로로부터 격리를 동시에 바라는 판단기준으로 해석된다. '입지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요인 9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문항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중교통여건'이라는 명칭을 부여하

였다.

(2) 이차 요인(second-order factors)

표 3은 일차 요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수를 나타낸 것인데, 표에서 서로 상관성이 높은 요인들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차 요인들을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이라고 할 때, 이 하위차원들을 묶는 상위차원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상위차원을 추출하기 위해 이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요인 분석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최초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을 사각회전(promax, k=4)을 시켜 요인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유치가 1이상인 3개의 이차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67.9%를 설명한다(표 4 참조).

이차요인 1은 전체 변량의 37.47%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여가기회·편리한 생활여건', '자연친화적', '전통적 마을분위기' 그리고 '경관미' 등의 일차 요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 이차요인 1은 상당히 복합적인 하위개념이 중첩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앞에서 논의

표 3. Factor Correlation matrix

요 인	요 인								
	1	2	3	4	5	6	7	8	9
1	1.000								
2	0.478	1.000							
3	0.476	0.537	1.000						
4	-0.210	0.092	0.197	1.000					
5	0.471	0.444	0.584	0.115	1.000				
6	0.173	0.320	0.273	0.132	0.182	1.000			
7	-0.092	0.058	0.153	0.311	0.076	0.164	1.000		
8	0.212	0.111	0.266	0.043	0.151	0.297	0.215	1.000	
9	0.171	0.056	0.279	-0.014	0.144	-0.028	0.174	0.249	1.000

표 4. 이차 요인 분석 결과

이차 요인	요인형태계수 및 일차 요인 (일차요인분석에서의 설명량)	설명변량
1	0.707 요인1, 여가활동기회, 편리한 생활여건(24.40) 0.887 요인2, 자연친화적(10.0) 0.824 요인3, 전통적 마을분위기(6.03) 0.870 요인5, 경관미(4.50)	37.47
2	0.868 요인4, 농업의 비중(4.50) 0.376 요인6, 취락형태(3.81) 0.694 요인7, 공동체문화(3.58)	17.97
3	0.797 요인8, 입지조건(3.25) 0.815 요인9, 대중교통의 여건(3.23)	12.46
		67.90

한 어메니티 개념의 핵심적 내용, 즉 생활여건의 편리, 자연친화, 역사문화성,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차요인 1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농촌어메니티'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차요인 2는 농업의 비중이라는 기능적 특성 이외에도 취락경관상의 특징(즉 취락형태) 및 공동체성 등 다소 이질적인 차원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농업의 비중 변수(first-order factor)의 행태계수가 다른 변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농업기능을 나타내는 이차요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일반인들은 농촌어메니티를 평가하는데 농업기능의 유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농업은 단순히 경제활동이라기보다는 농촌다운 속성이나 경관을 형성하는 기초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을 위시한 유럽의 국가들이 산간농촌에 있어서 농업의 유지를 촌락사회의 유지 수단이면서 발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OECD, 1999). 이차 요인 3은 입지조건과 대중교통 여건 두 일차요인과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접근성을 의미하는 상위차원이라고 설명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다소 혼란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적 분석 결과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 문항들이 하위차원(1차 요인), 그리고 상위차원(2차 요인)들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묶이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⁸⁾ 특히 2차요인 분석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이차요인 1을 구성하는 하위차원들에 '생활여건의 편리성'을 포함하여 '자연친화' 그리고 '경관미', '전통적 마을분위기' 등 상당히 성격이 다른 하위차원들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이차 요인들과 비교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즉, 이차 요인 1은 바로 농촌어메니티 그 자체를 지칭한다고 볼 때,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농촌어메니티를 판단하는데 '생활여건의 편리성'과, '자연친화성', '경관미', '역사문화성'의 하위차원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된다. 이는 결국 응답자들은 생활조건

의 편리성을 희생하면서 자연친화성, 경관미, 역사문화성 등 목가적 이미지만으로 농촌어메니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많은 문헌에서 목가적 이미지가 중요한 주거 선호 요건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혹자는 후기산업사회의 소비양식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脫都市 주거이동, 농촌관광이 그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한다(Coppack, 1985). 그러나 우리의 실증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술담론의 주장들이 완벽히 입증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설계가 가지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학자들이 어메니티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식은 학자들의 주장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⁹⁾

2)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농촌 어메니티 인식 비교

어떤 장소의 질 또는 매력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득, 연령, 현재 거주장소의 질 등 여러 가지 개인속성에 따라 판단의 내용이 다르기 마련이다. 즉 장소의 매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떤 경향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인속성들은 개인간 편차를 설명해주는 유력한 변수임이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어 왔다. 장소매력에 대한 판단의 경우 현재의 거주환경은 개인간 편차를 설명해주는 대표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떤 장소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거주장소에 대한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장소의 효용성의 크기(place utility)는 현 거주장소에 대한 만족도의 함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거주지역 유형별로 응답자의 어메니티 인식에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도시 주민의 경우 농촌거주 경험과 농촌으로의 이주의사에 따라 농촌어메니티 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일산·분당 신도시, 화성, 충청남도 홍성·강원도 화천이고 각각 도시, 근교농촌, 일반농촌을 대표한다고 간주하였다. 각 조사지역들 내에서도 적지 않는 거주환경의 편차 존재할 것이나 각 지역유형 내부에서 거주환경의 편차는 지역유형간 편차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은 각 요인에 있어서 유의미한 문항들의 실제 척도값을 합산하여 구한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자연친화' 차원(요인 2), '대중교통여건' 차원(요인 9), '경관미' 차원(요인 5),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요인 3) 및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 4)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매겼다. 이처럼 응답자들이 자연환경 조건이나 경관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통성 혹은 역사문화성이 농촌어메니티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다는 점은 응답자들이 여러 문헌에서 언급된 어메니티 개념과 유사한 개념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문항에서도 대체로 자연친화와 관련된 문항이나 역사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문항에 대한 중요도를 다른 문항들에 비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표 5 참조).

거주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차원은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요인 1), '경관미' 차원(요인 5),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요인 3),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 4) 등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차원들은 '농업의 비중' 차원을 제외하고 모두 분당·일산 거주 응답자들이

표 5. 거주집단별 평가 비교

항 목	1차 요인	홍성· 화천(A)	화성 (B)	분당· 일산(C)	전체	F 값	두 집단간 비교		
							A,B	A,C	B,C
마을이 아늑하다	요인2	3.29	3.40	3.69	3.52	3.38*		■	
마을이 유서가 깊다	요인3	3.35	3.42	3.31	3.35	0.21			
마을제사, 마을놀이 등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다	"	3.05	2.92	3.54	3.26	6.41**		■	■
초가, 한옥 등 옛날 가옥들이 남아 있다	"	2.27	2.78	3.34	2.95	14.93**	■	■	■
마을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있다	"	3.80	3.44	3.61	3.6	1.56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	요인2	3.31	3.51	3.87	3.65	5.18**		■	■
주위에 논밭이 많이 있다	요인4	3.6	3.66	3.27	3.45	3.56*			■
관혼상제나 농번기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는다	"	4.29	4.44	4.08	4.23	3.16*			■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비슷하다	요인7	3.13	3.32	3.14	3.19	0.90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많다	요인4	3.45	3.6	3.06	3.3	6.15**		■	■
농업이 마을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	3.85	3.44	3.03	3.32	9.14**		■	■
집이 많지 않다	"	3.15	3.14	2.79	2.97	3.91*		■	■
소음이 적다	요인3	3.56	3.47	4.05	3.78	7.80**		■	■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다	요인2,3	3.36	3.17	4.31	3.78	37.04**		■	■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	요인2	3.8	3.91	4.53	4.19	13.91**		■	■
논밭, 숲, 산, 하천 등 다양한 풍경을 접할 수 있다	"	3.71	3.81	4.27	4.23	8.26**		■	■
여러 가지 야생 동식물 혹은 곤충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인5	3.33	3.32	3.92	3.62	7.86**		■	■
경치가 수려하다	"	3.35	3.27	3.9	3.6	10.01**		■	■
마을 안길, 농로, 개천 등에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	3.4	2.93	3.82	3.47	14.49**	■	■	■
전망이 탁 트였다	"	3.32	3.21	3.69	3.48	5.52**		■	■
집들이 모여 있다	요인6	2.82	3.38	2.91	3.03	5.78**	■		■
현대식 건물이나 시설들이 별로 없다	"	2.93	2.9	2.9	2.9	0.01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요인9	3.8	3.27	3.82	3.66	6.47**	■		■
도시에서 인접해 있다	요인8	2.91	3.3	3.02	3.08	2.46	■		
도로에서 떨어져 있다	"	3.05	2.83	3.08	3.0	1.50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인1	3.18	2.74	3.58	3.25	12.98**	■	■	■
여가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	"	2.96	2.57	3.13	2.93	5.04**			■
생필품을 동네에서 살 수 있다	"	3.07	2.49	3.77	3.25	28.27**	■	■	■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다	"	3.45	3.3	3.81	3.59	4.81**			■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이 가까이 있다	"	3.29	2.96	3.45	3.27	3.89*			■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	3.49	3.27	3.72	3.54	4.24*			■
여가 시간에 할만한 것이 있다	"	3.05	3.0	3.66	3.34	9.83**		■	■

주 : 1) 1차 요인은 1차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명칭
 2) F값의 *, **은 각각 유의도 0.05미만과 0.01미만에서 유의함을 의미
 3) ■ 은 ANOVA 분석의 사후 검증(LSD test)에서 유의도 0.05미만에서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

표 6. 응답자 거주지역별 요인변수군 평균 척도값¹⁾

구 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편 리 한 생 활 여 건	자 연 친 화	전 통	농 업 의 비 중	경 관 미	취 락 형 태	공 동 체 문 화	입 지 조 건	대 중 교 통
분당·일산(A)	3.59	4.09	3.69	3.25	3.83	2.90	3.42	3.05	3.82
화성(B)	2.91	3.92	3.20	3.66	3.19	3.14	3.36	3.06	3.27
홍성·화천(C)	3.22	3.78	3.23	3.67	3.35	2.87	3.21	2.98	3.80
전체 평균	3.31	3.97	3.45	3.45	3.54	2.97	3.36	3.04	3.66
F값 ²⁾	16.10**	3.83*	12.71**	11.71**	14.88**	1.95	1.03	0.18	6.47**
LSD검증	A,B	■		■	■	■			■
	A,C	■	■	■	■	■			
	B,C	■							■

주 : 1) 각 요인의 유의미한 문항들 척도값을 한산하여 구한 평균값
 2) *, **는 각각 유의도 0.05미만과 0.01미만에서 F값이 유의한 것을 나타냄
 3) ■ 는 유의도 0.05미만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의 차이가 인정됨을 의미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한 차원들이다. 특히 분당·일산의 주민들은 비록 ‘자연친화’ 차원, ‘경관미’ 차원 혹은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의 중요도도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도시주민들은 농촌주민들에 비해 교육, 의료, 여가 기회 등 각종 생활여건이 훨씬 양호한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에 대한 중요도 평가가 다른 거주지역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 도시민이 자연친화적, 역사문화성이 풍부한 농촌어메니티를 회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재 누리는 편리한 생활여건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취하려는 의사는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도시민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잠재수요가 실제로 거주이전과 같은 실천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¹⁰⁾ 이점은 전원주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전원주택 거주자들의

이주동기와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비록 전원생활을 동경하면서도 도시적 생활기회로부터 결코 격리되지 않으려는 도시민의 욕구가 절충적인 거주양식인 전원주택 그것도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중심으로 표출된다는 주장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구동희, 1998).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생활의 불편을 점차 강하게 느끼면서 도시거주로 회귀하는 사례도 많아진다는 사실도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사람들의 주거선호도 자연친화성과 생활여건의 편리성을 절충할 수 있는 대도시 주변지역이라는 조사 결과도 이러한 해석을 입증해준다(주성재, 1999).

농촌 응답자들은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 4)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원에 있어서 도시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농업의 비중’ 차원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은 응답자들의 직업적 배경을 고려해볼 때 쉽게 예상되는 결과라 하겠다. 나아가 화성의 응답자와 홍성·화천의 응답자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편리한 생

활여건' 차원과 '대중교통' 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는 화성의 응답자들이 대체로 홍성·화천의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도시적 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거주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화성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자연친화 차원이나 경관미 그리고 역사문화 차원 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지역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농촌거주 경험과 농촌 거주 의사 유무에 따라 농촌어메니티 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어떤 차원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년기 혹은 인생의 한 시기에 농촌에 거주했던 경험이 도시민의 전원적 농촌에 대한 태도나 실제 농촌으로의 이주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주장들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Beesley and Walker, 1990; 구동회, 1998). 아마 후자의 연구들은 실제 이동을 행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그 태도나 배경을 조사한 것이고, 농촌 생활에 대한 동경 여부와 상관없이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본 연구와 방법론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 중에는 구체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동경조차 하지 않았을 응답자들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 경우 농촌거주 경험 여부는 인식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일으킬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학계에서 계획의 원리로서 또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는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구조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 행위의 직접적 대상자이면서 계획의 실질적 주체이거나 혹은 관광이나 거주선택을 통해 농촌어메니티를 향유할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농촌어메니티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째, 사람들이 농촌어메니티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개념적 차원들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사전에 상정된 어메니티 개념의 하위 차원들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둘째, 도시민과 농촌주민들의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인식의 구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학술적인 논의와 일반인들의 인식들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들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이 농촌어메니티를 인식함에 있어서 '여가활동기회·편리한 생활여건', '자연친화', '전통적 농촌분위기', '농업의 비중', '경관미', '취락형태', '공동체문화', '입지조건', '대중교통여건'의 9가지 개념적 하위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위차원은 다시 3개의 상위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압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상위차원은 '생활여건의 편리성', '자연친화', '경관미', '전통적 농촌분위기' 등의 하위차원들로 구성된다. 즉 이 상위차원에는 사실상 농촌어메니티의 주요 개념적 차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농촌어메니티에 있어서 자연친화성이나 경관미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동시에 생활여건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사례 연구에 국한해서 판단해 볼 때, 일반인들은 농촌어메니티를 인식

할 때 생활여건,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등의 중요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응답자의 거주집단별로 위의 하위차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거주집단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주는 차원은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요인 1), '경관미' 차원(요인 5),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요인 3),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 4) 등으로 '농업의 비중' 차원을 제외하고 모두 분당·일산 거주 응답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한 차원들이다. 특히 분당·일산의 주민들은 비록 '자연친화' 차원, '경관미' 차원 혹은 '전통적 농촌분위기' 차원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여건' 차원의 중요도도 다른 거주지역의 응답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이 자연친화적, 역사문화성이 풍부한 농촌어메니티를 희구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현재 누리는 편리한 생활여건을 희생하면서까지 성취하려는 의사는 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농촌 응답자들은 '농업의 비중' 차원(요인 4)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원에 있어서 도시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또 화성의 응답자들은 '자연친화', '취락형태', '공동체문화' 등의 하위 차원에서 홍성·화천의 응답자들에 비해 중요도를 약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화성의 응답자들이 급속한 도시적 개발로 거주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앞의 두 연구결과로부터 농촌어메니티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혹은 '목가적 농촌'에 무게를 더 많이 두는 학술담론과 일반인들의 현실적 인식 사이에는 일정한 괴리가

발견된다. 일반인들도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목가적 농촌이미지' 등이 농촌어메니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동시에 '편리한 생활여건'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어메니티 인식의 구조 분석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과 함께 '생활여건'이 하나의 상위차원을 형성하고, 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활여건을 갖춘 도시민들이 오히려 생활여건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데서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자연친화성' 혹은 '역사문화성'과 '편리한 생활여건' 사이에 존재하는 trade-off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어메니티 개념에 입각한 농촌계획의 접근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겠다. 하나는 모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메니티에 입각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메니티 조건을 잘 갖춘 특정 지구만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원리에 입각한 계획을 적용하는 형태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어메니티 고유의 속성, '자연친화성', '역사문화성', '경관의 아름다움'과 '생활여건의 편리'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는 계획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대상의 정책사업 예를 들면 '정주권 사업'이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방식으로 어메니티 개념에 입각한 계획접근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먼저 어메니티 사업지구로서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사업지구의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 1) 생태계획과 경관계획은 계획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칭하고 있다면, 어메니티 계획은 대상을 다루는 원리 또는 접근방법을 의미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 계획은 계획이념 혹은 계획 철학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념적 불명확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 2) 최근 학술담론과 일상 담론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성찰적 연구자세(reflective study)가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연구태도는 학자들의 논리에 의해 구축되는 허구적 현실을 버리고 사회가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소위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깊이 있게 천착하려는 연구태도이다 (Giddens, 1986; Moscovici, 1984; Sayer, 1989).
- 3) 도시계획 혹은 주거환경계획에서 어떤 장소의 어메니티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은 어메니티 개념에 내포된 주요 차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혹은 농촌이미지 연구사례들은 농촌성(rurality)나 장소의 환경적 이미지와 관련된 차원들을 제시해 준다. 이것들은 그대로 어메니티의 차원들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 4) 사전 조사는 2002년 1월 중에 용인시 양지면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척도값을 묻는 문항리스트 외에 응답자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에 어울리는 이미지에 부합되는 요소들을 직접 기록하는 질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5)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이장 조사는 면사무소 이장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작성에 앞서 설문취지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이장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6) 제외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주변도로는 넓고 잘 닦여 있다', '동네에 차량통행이 수월하다' '내세울 만한 농산물 또는 특산물이 있다' 그리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다. 앞의 두 문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하여도 계속해서 완전히 이질적인 문항 '공기와 물이 깨끗하다'와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설문지 문항배열에서 이 네 문항은 우연히 연속해서 배열되어 있는데 그 결과 응답자들이 이 네 문항에 대해 비슷한 선호 판단기준을 갖고 점수를 부여하고 성질이 비슷한 문항들 중에 서로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같은 판단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응답을 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머지 두 문항 역시 별도의 요인

표. 어메니티 관련 주요 연구사례에서 언급된 차원들

연구분야	사례	주요 차원
도시 및 주거 환경계획 연구 ¹⁾	동경도(1991)	지역의 쾌적함과 정숙함/ 자연과의 조화 / 지역의 이름다움
	기타큐우슈우(1985)	쾌적도와 정숙도/ 자연과의 접촉 / 이름다움과 여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5)	도시의 오염/ 도시의 자연조건 및 경관 / 도시의 문화
	성현찬·이영준(1996)	지역의 쾌적함과 조용함/ 자연과의 접촉 및 조화/ 지역의 이름다움과 여유/ 지역의 환경보전 노력
	이재준(1998)	안전성/ 편리성/ 사회경제성/ 자연친화성/ 위생·보건성/ 문화성
지역 혹은 농촌 이미지 연구	김성만(2000)	이동성/ 취락의 형태/ 환경의 질/ 지역분위기/ 상징성
	Palmer(1976)	접근성/ 여가활동기회/ 취락구조/ 경관/ 분위기
	Coppack(1985)	심리적 속성/ 경관 속성 / 시설 속성
	Halfacree(1993)	경관/ 사회구조/ 인구밀도/ 기능/ 자연환경/ 지역사회분위기

주 : 1) 이재준의 연구(1998), p.45에서 재구성

- 으로 묶여지지 않으면서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낮은 상관계수 값을 나타내어 제외하였다.
- 7) 문항 '집이 많지 않다'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요인은 요인 4인데 이때의 상관계수 값이 0.316이다. 이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유의미한 상관계수의 하한이라고 간주하였다.
 - 8) 인간의 내면 심리를 측정하거나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인식 구조를 측정하는 척도분석에서는 이러한 일이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의 질문지에도 응답자들이 쉽게 의미를 떠올릴 수 없거나 응답자들간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 다수 있다.
 - 9) 말하자면 학술담론(academy discourse)과 일상담론(lay discourse)의 괴리이다. 어메니티 개념에 입각한 학자들의 계획은 학술담론의 실천이라고 할 때, 일반인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학술담론의 실천은 일종의 권력의 행사라고도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있다(Jones, 1995).
 - 10) 도시민에 대한 설문에서 장차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을 물었을 때 도시민 응답자(131명) 가운데 단지 15명만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참 고 문 헌

- 구동희, 1998, 대도시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적응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준, 1998,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어메니티 평가와 계획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록 · 이상석 · 추명희, 1999, "통합여수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변화와 도시발전의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 pp.123-144.
- 이영준, 1991, 다변량분석, 서울: 석정.
- 주성재, 1999, "정보화에 따른 국토공간변화 전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 pp.169-182.
- Beesley, K., and Walker, G., 1990, "Residence paths and community perception: a case study from the Toronto urban field," *The Canadian Geographers* 34(4), pp.318-30.
- Coppack, M., 1988, "Reflections on the role of amenity in the evolution of urban field," *Geografiska Annaler* 70B(3), pp.353-361.
- Craik, K. H., 1971, "The assessment of places," in McReynolds, P.(ed.), *Advances in Psychological Assessment*, pp.40-62.
- Giddens, A., 1986, "Action, subjectivity, and the constitution of meaning," *Social Research* 53, pp.529-545.
- Halfacree, K. H., 1995,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pp.1-20.
- Jones, O., 1995, "Lay discourses of the rur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rural studies," *Journal of Rural Studies* 11(1), pp. 35-49.
- Kim, S.-M., 2000, *The Psychological Map of a City*, Ph. D. Thesis,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heffield.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 in Farr, R. and Moscovici, S.(eds.), *Social repres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3-69.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OECD.
- Palmer, C.J., Robinson, M.E. and Thomas, R.W., 1977, "The countryside image: an investigation of structure and mean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9, pp.739-749.
- Sayer, A., 1989, "The 'new' regional geography and the problems of narrative," *Society and Space* 7, pp.253-276.

An Investigation of Structure and Meaning of Rural Amenity

Young-Kug Joh* · Chang-Sug Park** · Young-Ok Jeon***

*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Hyupsung University*
(e-mail: forgeo@hyupsung.ac.kr)

**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Hyupsung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perception of rural amenity which rural and urban residents have. Many Lickert scaled questions measure how much important the respondents think about the various items related to rural amenity respectively. It reveals that there is not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ree upper dimensions composing the construct of rural amenity, historic-cultural dimension, natural environmental dimension and living condition dimension. This means that our respondents are not willing to pursue historic-cultural aspects and natural environmental aspects at the risk of living condition being able to enjoy comfortable and affluent opportunities. And also, this results reveals that people might have a quite different perception compared with academic discourse putting much weight on historic-cultural dimension and natural environmental dimension.

Key words : rural amenity, Lickert scale, the perception of rural amenity, academic discourse.